복지를 사는 삶의 해석법

(민34:1~29)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3.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4.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5.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6.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지를 사는 삶의 해석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복지를 사는 삶의 해석법'

쥐 없는 마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쥐가 없으니 고양이가 할 일이 없어서 게으르고 움직이질 않으니 살만 뒤룩뒤룩 찌고 밉상을 떱니다. 생선을 말려두면 훔쳐 먹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다 어질러놓고 온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못 된 짓을 하는데, 한 번은 뱃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고양이를 보고 마을대표에게 고양이를 팔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잘 됐다 싶어서 고양이를 팔아버렸습니다. 뱃사람은 쥐가 많은 배안에 이 고양이를 둡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느라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다보니 온 뱃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고양이가 되었는데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인격 됨의 본질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고양이의 본질이 발휘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고양이로 인해서 주변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지를 살아갈 때에 복지가 어떻게 해서 내게 복지로 활성화 될 수 있고, 실제로 복된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냐는 것인데 바로 삶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못 벌었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사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돈을 못 번 일에 대해서 불행하다는 해석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잘못 되는

것은 쥐 없는 마을의 고양이와 같이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을 제자리에 앉혀놓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이란 내 삶에서 주어지는 사건들, 내 삶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들과 내 삶에 채워져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의 본래 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면 그 사건과 상황들의 본질이 발휘되면서 내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도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 두면 그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의 본질이 발휘되면서 내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를 사는 삶의 해석법은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내 삶을 채우는 모든 사실들과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었다'는 제자리를 찾아주기만 하면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복이 내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를 사는 방법으로서의 사건과 상황과 사실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의 사방경계를 아예 정해주십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니라'라고 하시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 경계인 지중해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십니다. 정복전쟁 개시 전에 미리 경계를 정해놓으시므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더 많이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미리 정해주신 경계만큼만 정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서의 복지인 가나안은 정치, 군사적 각축의 결과로서 정해진 경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일방적으로 정해주셔서, 영토 확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알렉산더, 칭기즈칸처럼 선민도 좀 광활한 땅을 차지하면 안 됩니까? 팔레스타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작은 곳입니다. 칭기즈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다시피 할 때에 그들의 인구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250만 명이라면 유라시아 대륙은 아니더라도 좀 열어두시면 좋겠는데 딱 정해주신 것을 보면 가두어두신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이 본문에서 왜 경계를 정해주시는 일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선민에게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의미는 내가 문 밖에 나가서 삶을 살기 전에,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복하고 누리고 찾게 될 복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간다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경계를 정해 놓으신 복지가 있고 그 복지를 찾는 것이 내 일과인데, 그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그 일 안에서 복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관계하는 동안에 잘 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복지 찾기를 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지가 있으니 그것을 찾

으면 나와 자식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생활 모든 것들이 다 복지로 채워져 갑니다. 오늘은 오늘 분의 복지가 있고, 내일은 내일 분의 복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얻을 복지가 있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얻을 복지가 있습니다. 그 복지를 찾아내면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주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로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해석함으로 숨겨진 복지를 찾아내고 정복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해진 경계의 복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데 바로 그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해석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복지를 정복하려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복지를 획득하려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지는 사건, 상황, 사실들을 해석함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복하는 해석의 삶을 살기 전에 알아야 하고 편견을 깨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행복하고 복되게 삽니다. 이러한 삶은 외형적으로 일정하게 틀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자로만 산다든지, 관직이 최고로 높아질 때까지 승진만 한다든지, 소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형통하기만 한다든지, 건강하기만 해서 무병장수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복된 삶의 복지는 외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가 외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고 본다면 사도들과 기독교 초기의 신자들은 아예 복지를 산 사람이 없게 되므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선민들에게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과 사실들과 상황들은 모두 복지로 정해진 동서남북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내가 선민이라면 복지로서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 삶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마치 계좌의 돈처럼 저금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갈 때에 직장 안에서 누릴 복지가 저금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복지가 저금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 쓰면 됩니다. 선민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으로 저금 된 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지를 찾기 위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들이 주어질 때에 그 속에는 복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은 억지로 나 스스로를 세뇌하고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못 벌었지만 이 상황도 좋을 수 있다고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어서 그렇게 할 때에 내게 주어진 사실과 상황과 사건들 사이에 숨어있는 복을 찾아내서 복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이 땅에서 지금 현

재 내 마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절박한 사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들을 내 마음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인데 쥐가 없는 마을에 있던 고양이를 쥐가 많은 배안에 두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상황과 사건과 사실들에게 마음에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절박한 사실들은 반드시 두 번째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자리로 앉혀놔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실들의 본질이 발휘되면서 복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준도 다 해석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못 벌었다는 것도 다 해석인데 이 절박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복지의 삶을 살기 위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의 제자리는 항상 내 마음에서 두 번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담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자리를 찾아줘야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바로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절박합니다.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절박한 사실의 본질이 드러나고 예정된 복지를 누리고 정복하려면 고양이를 제자리에 두듯이 두 번째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절박한 사실과 사건을 내 마음에서 첫 번째 관심사의 자리에 앉히면, 그 사실들과 사건들은 결코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번째 자리에 앉혀야만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될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두 분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이루고 계시며, 내가 주님의 자리로 초대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첫 번째로 절박한 사실입니다.
내게 지금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 상황이 주어져 있어도, 이 절박한 사실과 동시에 하늘에서 주님과 하나님아버지께서 교제하고 계시는데 나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서 주님이 하나님을 갖듯이 하나님을 가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 상황보다 더 앞선 절박한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 내 마음이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것이 절박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자리에 앉혀놓고, 첫 번째 절박함을 따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고백을 하게 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사실의 본질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 본질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인데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여기거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나쁜 일도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해석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절박한 사건과 상황과 사실들에 대해서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해석인데, 그 본래의 자리는 항상 내 마음

에서 두 번째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몸이 죽는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도, 건강이 상하는 것도 내 몸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나 다른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죽어도 하늘을 갖게 되면, 내 몸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제까짓 게 아무리 이 땅에서 절박하고 급박하고 시급해봤자 하나님께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네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예수가 나의 아들인 것처럼 아들이 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보다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에 살아 계신다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더 시급하게 내 마음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인정해 놓으면 세상의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되자마자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실들이 이상합니다. 건강이 상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게 되자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복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를 사는 해석법입니다.

살전5:16~18절에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선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인류역사상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았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이루신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격을 다 쏟아 부으셔서 이루신 사역 안에 들어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입니다. 십자가가 경계입니다. 이 안에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복지로 만드는 근원인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십자가가 경계가 되고, 위를 향해서는 주님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경계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복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복지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승천까지인 것입니다. 마음이 그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도 십자가와 승천까지 사이에 마음을 둔다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미리 저금해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저금해 두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470년간을 저금해두셨던 것입니다. 저금해 둔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으니 가나안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470년 동안 저금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직장을 나가든 가정에 있든 언제 어디에서든지 기쁨이 저금되어 있습니다. 그 저금되어 있는 기쁨을 그곳에서 찾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사실들, 사건들이 범사이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그 속에 저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망했다면 그러나 나는 그 망한 상황에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십자가에서 승천까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이룹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사업이 망했다는 극단적인 사실 속에 은혜가 저금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아셨습니까?
내가 건강이 나빠졌어도 그 사실을 두 번째로 놓고, 선민답게 마음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더 절박한 일이라서 첫 번째로 놓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났더니 건강이 나쁘다는 사실 속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말뚝 같은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면서 선교 사업을 하지만 고후12: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석을 하고, 빌3: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그 동안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해석이고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도’ 해석입니다.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하나님을 갖게 되어서 그 동안 유익했던 것들을 두 번째 자리로 놓게 되자 그것들의 본질이 배설물임이 드러납니다.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대해서는 배설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쥐 없는 마을의 고양이가 쥐 많은 배 안으로 갔을 때에 고양이의 본색이 드러나듯이, 이 세상의 사건과 상황과 사실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의 본색이 두 번째 자리에 놓였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지를 사는 삶의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절박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더 절박한 상황이 있다. 돈이 안 벌리는 상황아! 자식이 문제인 상황아! 미안하다. 너는 두 번째로 놓고, 우선은 십자가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을 아버지께로 드리는 것이 절박한 사실이므로 첫 번째 자리에 둔다.’라고 십자가로 드리는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두 번째로 미뤄두었던 것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래서 돈이 안 모이게 하셨고, 이래서 건강에 적신호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하!’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정해 놓으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가나안을 쟁취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금해 놓으신 기쁨과 은혜를 찾아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것들을 준

비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계속 재잘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가 지금 내가 복지를 사느냐 아니냐의 증거이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건들이 해석되고 사건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무슨 일을 이 땅에서 만나든지 내 마음의 첫 번째 사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미뤄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 눈앞으로 기쁨과 은총이 튀어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시며 날마다 복지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금해 놓으신 기쁨과 은총을 찾아내서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복지를 살기위하여 언제나 올바른 해석을 시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